

# 진흥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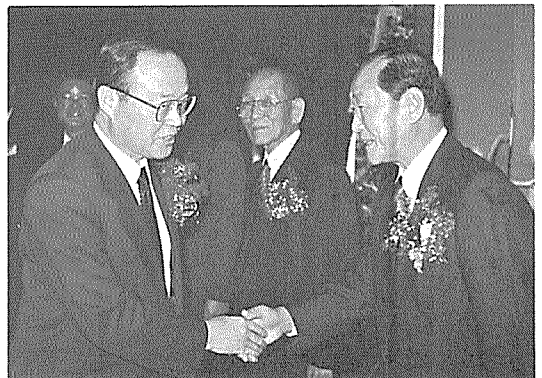
## '95년 전자공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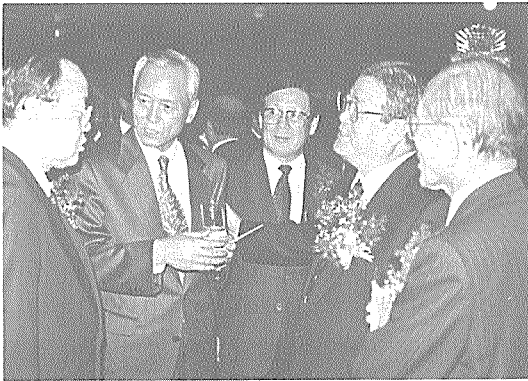
'95년 전자공업인 신년 인사회가 지난 1월 11일(수)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350여 명의 전자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재운 통상산업부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안광구 특허청장, 박용도 무공사장, 이현조 LG전자회장, 김상영 전자신문 사장, 고명철 전자조합 이사장 등 정부 및 업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본회 구자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나해 우리 전자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8년만에 처음으로 20%를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는데 특히 수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 국가 총수출의 3/1을 담당하는 성장 선도사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 전자공업인의 땀흘린 노력의 결과임을 치하하고 새해에는 국내의 환경이 결코 밝지만은 않지만 세계의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개발과 품질 및 가격의 세계 일류화를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진흥회도 올해를 「회원 서비스 배가의 해」로 설정, 종합전산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극대화, 회원사 애로사항과 품목별 세계 시장의 총점검 등 회원서비스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해 산업현장과 수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해주신 전자공업인들의 그 동

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95년에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 NAFTA의 발효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힘찬 전진을 보일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 속의 우뚝선 전자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의했다.





### '94 전자부품 표준화 137건 추진

본회는 '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1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화 사업관련 실태조사 결과 전자기기 및 부품의 표준화 실적은 모두 64건으로 전년대비 48.8%가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40건보다 24건이 초과 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본회가 '92년부터 추진해온 표준화 규격은 137건으로 확대 됐으며 '96년까지 2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보면 표준화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93%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현재 표준규격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34.3%에 불과했다.

또 앞으로도 표준규격을 채용할 계획이 없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업체가 23.1%에 달해 표준규격의 제정과 함께 채용확대를 위한 표준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표준규격 채용으로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7%에 불과한 반면 성과가 미흡하거나 성과가 없다는 반응이 62.0%에 달해 표준화 품목 선정시 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표준화와 관련한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표준규격 채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24.1%, 설

비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표준화사업이 생산성 향상과 설계 용이, 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표준화사업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업체가 38.9%였으며 「설계가 쉬워진다」가 32.4%,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가 26.8%, 「국산화가 수월해진다」가 23.2%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국 전자업체들은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현재 사용하는 부품을 표준화해 채용할 경우에는 시설기자재의 변경 등 추가비용이 들고 기본설계부터 변경해야하는 것 등 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전자기기 및 부품 표준화 현황('94년)>

	규격번호	규격명칭
전 기 통 신	EIAK TE-1000	팩시밀리용 감열기록소자(TPH규격)
	1001	CATV동축용 간선증폭기(TA)
	1002	CATV간선분기증폭기(TBA)
	1003	CATV간선분배증폭기(TDA)
	1004	CATV연장증폭기(EA)
	1005	CATV2분기기(2TAP-OFF)
	1006	CATV4분기기(4TAP-OFF)
	1007	CATV8분기기(4TAP-OFFBA)
	1008	CATV2분배기
	1009	CATV3분배기
	1010	CATV방향성결합기
	1011	CATV용 진폭 변조기
	1012	CATV용 동축케이블(HFL-5C)
	1013	CATV(HFL-7C)
	1014	CATV(HFL-10C)
	1015	CATV(HFL-8C)
	1016	CATV(HFL-12C)
	1017	CATV(HFL-17C)
1018	CATV기기의 심벌마크	
가	EIAK CE-3009	전자식 냉장고의 파워릴레이
	3010	전자식 냉장고의 소용량 파워릴레이
	3011	전자식 냉장고의 대용량 파워릴레이
	3012	20", 21" 컬러 TV의 트랜스 스위치용 보빈

전	3013	60 래디얼 태핑타입 반고정저항기(0.1W용)
	3014	60 래디얼 태핑타입 반고정저항기(0.3W용)
	3015	진공청소기의 내구성 시험방법
	3016	진공청소기 흡입률 시험방법
	3017	진공청소기의 소음시험방법
정 보 처 리	EIAK DP-4000	SOLT형 마더보드
	4001	올인원형 마더보드
	4002	에드온 카드
	4003	SOLT형 케이스
	4004	올인원형 케이스
	4005	A형 SMPS
	4006	B형 SMPS
	4007	키보드
	4008	CAR 모니터
4009	FDD·CD롬 드라이브	
전 자 다 바 이 스	EIAK TC-5010	음극선관용 유리의 유효경 및 유효면적
	5011	음극선관용 유리의 특성규격
	5012	음극선관의 혁명체제
	5013	음극선관용 유리검사규격
	5014	음극선관용 시험방법
	EIAK TCR-5015	음극선관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EIAK TC-5016	음극선관 X선 한계곡선 표기 방법 및 X선 특성규격의 정리법
	5017	TV용 음극선관의 누설X선 측정방법
	5018	음극선관의 X선량률 한계곡선 작성방법
	5019	라스타 주사방식에 의한 직시형 모니터, 디스플레이용 음극선관의 누설X선 측정방법
	5020	프로젝션용 음극선관의 누설X선 측정방법
	5021	비라스타 주사방식 직시형 음극선관의 누설X선 측정방법
	5022	편향요크부 음극선관의 시험방법
5023	전자관 CRT스크린(음극선관)용 형광체의 잔광측정방법	
5024	전자관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일 반 전 자 부 품	EIAK GC-6006	FPC코넥터
	6007	전자식 C-TV 파워릴레이
	6008	전자식 C-TV 소형 파워릴레이
	6009	전자식 C-TV 대형 파워릴레이
	6010	진공청소기의 금속연장관
	6628	고전압 브리드저항(FBI용)
	6629	FBI콤포지션 저항기
	6801	태핑타입 텍스트스위치의 포장 및 태핑 사양(모니터용)
	6802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Inner Box(내부포장용)
6803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Inner Box(국내용)	

## 본회의 가전업계, 폐기물 회수·처리제도 개선 건의

본회는 지난 1월 9일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와 공동으로 폐기물예치금 요율 인상안에 대해, 가전제품은 그 대상품목으로 부적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시설과 재활용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예치금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에도 예치금요율만 대폭 인상코자 하는것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여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번에 제시된 예치금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5개항으로 되어있으나 4개항은 부수적인 조치이며 그 골격은 폐기물의 회수·처리가 부진한 요인이 예치금요율이 낮은데 있다고 보아 이를 대폭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안에 의하면 가전업계는 '95년에 금년보다 288%가 증가된 11억원, '97년에는 214%가 증가된 235억원, 2000년에는 162%가 증가된 380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가 아직 저조한 요인은 예치금요율이 낮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 소각로, 매립장 등)이 부족하고 재활용산업이 육성되지 못한다기 때문이다.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예치금제도가 제조자에게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의 구축과 재활용산업 육성까지를 전제로 전국의 소비자가 배출한 모든 폐기물의 회수·처리와 재활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 제조자는 경쟁력있는 제품의 개발, 생산, 수출 등 기업 본연의 활동도 곤란할 뿐 아니라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의 다른 당사자인 소비자, 판매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재활용업계 등과의 협력이 어려워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도 어렵고, 예치금은 회수·처리자에

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그 효율을 인상한다해도 회수·처리 및 재활용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데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가전제품은 제조자가 폐가전제품은 직접 재활용할 수 없어 제조자의 회수 동기가 전혀 없는 품목을 예치금대상품목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회수 운반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또 예치금(회수 운반비와 처리비) 대상품목으로 설정해 2중의 부담을 하고 있으며 실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전제품을 예치금대상품목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전업계는 제조자로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제품개발,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용이화에 대한 사전평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업계 공동으로 실제 폐가전제품을 회수·처리 및 재활용하고 있는 전문업체(8개지역 : 8개사)와 계약하에 동 사업을 수행중에 있어 전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만 있으면 업계 자율적으로 회수·처리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년도('95년) 회수·처리 목표 : 배출량의 16%]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전자공업진흥회와 가전업계는, 가전제품을 예치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대상품목으로 제도를 일원화해 회수·처리 및 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재활용산업을 시급히 육성시켜 주고 예치금요율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시장기능 즉, 폐가전품 회수·처리 및 재활용사업자와 동 사업 위탁사업자간에 자율로 효율을 정

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회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가전업계 의견 건의

본회는 지난 1월 9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가전업계 의견을 수렴 통상산업부에 건의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SET만 수령하거나 판매대리점에 포장BOX 및 완충재(스티로폴)의 수거를 요구하고 있어 제조자와 판매대리점은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전업계는 현재 폐기물 예치금제도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또 포장재에 대한 처리비용도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약화요인이 초래되고 있으며 판매대리점이 소비자로부터 포장 BOX나 스티로폴을 1차회수 하여도 이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종량제에 의한 비용부담에 따라 소비자나 판매대리점의 스티로폴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포장용 완충재인 스티로폴은 회수만 선결되면 100%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자체에 의한 일률적인 회수·처리보다는 그 전문재활용사업자육성·지원에 의한 회수·재활용체제 구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스티로폴의 1차 회수는 판매대리점 및 제조자가 하되 2차회수 및 재활용은 재활용 전문업체에서 전담해야 할 것이며 현재 가전업계가 대체포장재 사용 확대 및 합성수지재 포장 완충재의 감량화기준을 정하여 년차적으로 그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종량제의 시행은 산업계의 판매정책에 어려움과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스티로폴에 대해 재활용품목으로 적용, 시행이요망된다고 건의했다.

## CATV 기기 규격 표준화 개과제 완료

본회는 지난해 5월 착수했던 동축케이블용 CATV기기 규격표준화 작업이 최근 8개 과제 18개 종류를 대상으로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43개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의 참여로 완료된 표준화 작업은 분야별로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방향성 결합기 △변조기 △동축케이블 △심벌마크 등 8개 과제로 완제품의 특

### CATV 기기 규격표준화 현황

분야(과제명)	내 용	범 위
증폭기 (Amplifier)	1 간선증폭기 (Trunk Amp)	- 용어, 단위, 전기적 특성, 구조 - 커넥터류(접속부) : 단위(mm /inch)
	2 분기증폭기 (Bridger Amp)	- 상태감시모듈의 호환성, 신호 pin의 정의(위치 등) - Trim모듈의 삽입
	3 분배증폭기 (Distribution Amp)	- 액세서리 규격 통일 • PAD • EQUALIZER
	4 연장증폭기 (Exttender Amp)	• DIPLEX FILTER • SPLITTER/COUPLER • SMPS등
분기기 (Tap-off)	5 2분기	- 용어, 단위, 전기적 특성, 측정 방법
	6 4분기	
	7 7분기	- 외형의 dB별 컬러화
분배기	8 2분배	- 표면처리
	9 4분배	- 액세서리 규격 통일 • 초크코일 • 코어 • 퓨즈
방향성결합기 (Directional Coupler)	10	
변조기 (Modulator)	11	- 합체외부 표기통일 - 용어, 단위, 전기적 특성, 측정 방법
	12 5C케이블	
동축케이블	13 7C케이블	- 합체외부 표기통일
	14 10C케이블	- 용어
	15 8C케이블	- 부품 및 재료
	16 12C케이블	구조 및 형태
	17 17C케이블	- 성능 및 특성
	18 광·동축기기	- 시험 검사 기준 - 표시 및 포장 등
심벌마크		기기의 제품별 모양, 약어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 표준규격의 채용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증폭기의 경우 간선증폭기·분기증폭기·분배증폭기·연장증폭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용어 및 단위, 전기적 특성, 구조 등 기본요소와 입출력 단자위치, 액세서리 규격, 부착방법 등을 표준화했다.

분기기와 분배기는 2분기·4분기·8분기 등에 대한 용어, 단위, 전기적 특성, 측정방법 외에 외형적 데시벨을 컬러화, 표면처리, 액세서리 규격통일의 표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변조기는 용어의 정의, 전기적 특성, 패널부의 기능을 위치, 측정방법 등에 대해 7종류의 케이블을 표준화한 동축케이블은 용어와 부품 및 재료 구조 및 형태, 성능 및 특성, 시험검사 기준 등에 대해 각각 표준화를 완료했다.

## 산업협의회 소식

**본** 회 리사이클 센터는 지난 1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 3사 국내 영업 부서장이 참석, 폐냉장고 회수·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폐냉장고 회수·처리비용 인상 등과 관련 협의하고 또한 지난 1월 12일에는 「가전 환경정책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와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전** 자부품 산업협회 저항기 표준화 위원에는 지난 1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기 최대성부장 등 3명이 참석, FBT용 컴포지션 저항기 표준화 회의를 개최, 저항기 표준화 규격을 완료하는 것 등을 협의했다.

**자** 기 미디어 산업협회는 지난 1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개최, 세계 자

기미디어 시장 동향 등을 분석했다.

**가** 전산업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업체 자재구매 담당자들이 참석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 파악과 업계의 공동 협력 과제 등을 협의했다.

**본** 회 리사이클 센타는 지난 1월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 3사 국내 영업부서장들이 참석, 가전제품 완충 포장재의 회수·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가전 완

충포장재의 회수·처리 체계 구축, 수거체제 및 처리시스템 마련,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 처리시설 설치방안 등을 협의했다.

**음** 극선관 등록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충남 유성에서 음극선관 등록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음극선관 관련 세미나 개최 주제와 일정을 협의하고, IEC/TC-39 회원 가입여부와 음극선관용 유리의 등록 신청양식 개정 등을 협의 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I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I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IAK-NET 가입안내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기획과

Tel : 553-0941/7 (교 : 53)

### 전자·정보자료 이용안내

전자·정보자료 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료의 열람·복사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자료실(Tel:553-094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